공정하다는 착각 논제

* **자유논제 -**

1. 여러분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었습니다. 해당 책의 가장 큰 주제는 능력주의가 실제로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작동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회에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본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2. 현대 사회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엘리트에 의한 ‘기술관료제적 통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샌델은 이에 대해 기술관료제적 통치는 실패했으며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엘리트주의(기술관료제)에 대안으로 가능한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  |
| --- |
| *..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뒤틀어놓았다. 그리하여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예는 높아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추락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여 또한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부딪친다.p.59 …(중략)…민주정치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다 건실한 정치담론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공통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p.61* |

**선택논제**

1. 현대 사회에서 정부 관료 및 정치인 대부분이 대졸자입니다. 여러분은 학위가 있어야 통치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새로운 지도자로 학위나 그에 준하는 시험(고시, 또는 전문 자격)등을 통한 자격을 일절 갖추지 않은 사람이 나온다면 이에게 표를 줄 의향이 있나요?

|  |
| --- |
| *.. 영국 전체를 통틀어 70퍼센트는 비대졸자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12퍼센트만 그렇다. 하원의원은 열 중 아홉이 대졸자이며 넷 중 하나가 옥스퍼드나 케임브릿지를 나왔다.p.162 …(중략).. 독일연방의회는 83퍼센트가 대졸자다. 2퍼센트도 안되는 의원들만이 고등직업학교(하우프트슐레)가 최고학력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82~94퍼센트가 대졸자다.p.163* |

1. 부유한 집안일수록 높은 입학점수를 내고, 대학입학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은 성적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보여주기에 ‘정의’롭지는 않아도 ‘공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과주의 입시제도에 동의하나요. 동의하지 않나요?

|  |
| --- |
|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일 수 잇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p31-32* |